

청소년복지시설 지역사회 구조모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중심으로-

김윤나*

서울사이버대학교

본 연구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역사회 구조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복지시설의 법적 근거와 기능을 정리하고, 복지시설 입지·공간적 접근성·GIS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론적 배경을 구성한 뒤, 전국 시설 주소를 좌표화하여 시·도별 시설 수, 유형 구성, 청소년 인구 대비 시설 밀도, 시설 간 거리 및 전환경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에 시설이 집중된 반면, 농산어촌 및 일부 도 단위 지역은 일시쉼터와 자립지원관이 부족해 긴급 보호와 자립 전이 지원의 공백이 확인되었고, 전국적으로 ‘단기·중장기쉼터 중심+소수 자립지원관’ 패턴이 나타나 보호·회복·자립 연속선 양 끝단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이를 토대로 생활권 단위 시설 연계망, 권역별 기능 분담, 취약지역 맞춤형 시설 확충 및 순회형 서비스 도입 등 지역사회 기반 구조모형을 제안하며, 향후 당사자 관점의 질적 연구와 장기 추적조사를 병행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요어 :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역사회 구조 모형

* 주저자: 김윤나/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교수연구동 503호
/Tel: 02-944-5131/E-mail: kimyoonna@daum.net

I. 서론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은 지역사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한 환경 조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로 청소년쉼터(137개), 청소년자립지원관(13개), 청소년회복지원시설(18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은 보호·상담·자립 등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거점이다. 그러나 시설 형태가 지역마다 서로 달라서 이에 대한 지역사회 모형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필요성은 제기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였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가출·위기청소년 등 복합적 문제를 지닌 집단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의 효과적인 보호와 자립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인프라 분포의 불균형은 청소년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에 차이를 발생시키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간 청소년 복지 수준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의 복합적인 욕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시설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체계를 구조화한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 활용하여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등 주요 청소년복지시설 간의 기능적 연계성과 협력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청소년복지시설 구조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청소년복지시설의 개념 및 특성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대표적 위기 청소년 복지시설로, 보호·자립·회복이라는 상이하지만, 연속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 지원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쉼터 또는 회복지원시설의 지원받았음에도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에게 자립생활 역량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상 감호위탁(보호처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자를 대신하여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은 각각 위기 발견·보호, 자립 준비, 심층 회복이라는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위기청소년을 다른 시점에서 지원하는 연속선상의 서비스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쉼터는 위기 상황의 즉각적 보호와 안정화, 회복지원시설은 심리·행동 문제의 집중 치료, 자립지원관은 보호 종료 이후의 독립생활 지원이라는 역할 분담을 한다.

이 세 시설 간 연계는 청소년의 위기 단계에 따라 ‘쉼터 → 회복지원시설(필요시) → 자립지원관’과 같은 역동적 이동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통합사례관리, 공동 평가도구,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정책적 과제로 제시된다. 또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조기 발굴·연계·사후관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권리 보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표 1> 청소년복지시설의 특성 비교

구분	법적 정의·기능	주 이용자 특성	핵심 서비스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며 상담·주거·학업·자립을 지원, 가정·학교·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	가출·가정폭력·학대·학교 등으로 가정 밖에 머무는 단기간 위기 상태가 많음	중단 24시간 보호, 위기상담, 생활지도, 학업연계, 의료·법률지원, 가정·학교 복귀 지원
청소년자립지원관	쉼터·회복시설 지원 이후에도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에게 자립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시설 경험이 길고 가족·경제적 지원망이 취약한 청소년, 보호종료(예정) 청소년data+1	자립주거, 직업훈련·취업연계, 자립교육(금융·생활기술), 사례관리, 사후관리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심각한 위기·비행·중독·외상 경험 청소년의 심리·정서 회복과 행동 교정을 위한 시설	다중 위기, 자해·자살 시도, 중독, 비행·범죄 경험 등 고위기 청소년	심리치료, 집단프로그램, 학교·사법·의료기관 연계, 가족개입, 재발 방지 프로그램

2. 청소년복지시설과 지리정보시스템(GIS) 활용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의 보호·활동·상담·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설치된 공공 또는 비영리 시설로, 수련시설·복지시설·상담복지센터·쉼터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설은 청소년의 일상생활권 안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시설의 ‘어디에, 얼마나,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가 서비스 이용권과 직결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연구에서는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단순한 제도적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적 접근성(spatial accessibility)과 이동 가능성(mobility)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해 왔다(Penman-Aguilar, A., Makram Talih, I. David Huang, Ramal Moonesinghe, Karen Bouye, Gloria Beckles, 2016).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은 지리적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속성 데이터를 통합·분석·시각화하는 정보체계를 의미한다(Burrough & McDonnell, 1998). GIS는 공간좌표를 중심으로 데이터 간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디에 무엇이 있으며, 그것이 무엇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데 강점을 가진다(Longley, P. A., Goodchild, M. F.,

Maguire, D. J., & Rhind, D. W.). GIS는 크게 (1) 공간 데이터의 수집·관리, (2) 공간 분석(spatial analysis), (3) 지도 기반 시각화(map visualization)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분포(distribution), 밀도(density), 접근성(accessibility), 거리(distance), 중첩(overlap) 등의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 기능은 복지시설 연구에서 서비스 공급과 수요 간의 공간적 불균형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된다.

청소년복지 영역에서 GIS 활용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위기청소년·가정 밖 청소년과 같이 이동성이 높고 보호 공백 위험이 큰 집단을 다룬다는 점에서 높은 정책적·학문적 활용 가치를 가진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같은 청소년복지시설은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 접근성이 요구되거나, 퇴소 이후 지역사회 정착과 연계가 핵심 기능이 된다. 이러한 특성은 시설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반대로 수요가 높은 지역에 시설이 부재할 경우, 청소년의 보호권·이용권을 구조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시설은 단순한 행정구역 단위의 배치가 아니라, 생활권·이동권·지역사회 자원 분포를 고려한 공간적 구조 분석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쉼

터의 위치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지역을 중첩 분석할 경우, 접근 곤란 지역(underserved areas)이나 시설 과밀 지역(overconcentrated areas)을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자립지원관과 회복지원시설은 퇴소 이후 지역사회 자원(주거, 고용, 교육, 정신건강 서비스)과의 연계가 핵심이므로, 시설-유관기관-생활권 자원의 공간적 연결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GIS는 이러한 연계 구조를 '네트워크 이전 단계의 공간 구조'로 파악하게 해주며, 이는 청소년복지시설을 개별 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구조모형의 구성요소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본 연구에서 GIS는 단순한 지도 작성 도구가 아니라,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역사회 구조를 실증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분석 프레임으로 기능한다. 즉, GIS를 통해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고 시설 유형 간 공간적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며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보호-회복-자립 전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역사회 구조모형을 공간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복지정책이 시설 확충 중심 논의를 넘어, 지역사회 기반의 구조적 설계와 전달체계 개선으로 확장되는 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역사회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였다. 거리 및 접근성 지표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실질적 이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변수로, 보호·회복·자립이라는 연속적 서비스 제공이 공간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기준이 된다. 밀도 및 권역 지표는 지역 간 복지자원 불균형과 구조적 공백을 파악하게 하여, 시설 확충이나 기능 재조정의 근거

를 제공한다. 전환경로 지표는 기존 시설 유형별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시설 간 연결 구조”를 공간적으로 가시화함으로써, 청소년복지 전달 체계를 ‘점(point)’이 아닌 ‘구조(structure)’로 이해하도록 한다.

GIS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의 공간 분포 시각화를 통해 지역별 설치 현황을 파악하였다. 2단계에서는 행정구역 단위별 시설 수 및 청소년 인구 대비 시설 밀도를 산출하여 공급의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시설 간 거리 분석을 통해 접근성 및 전환경로의 공간적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4단계에서는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역사회 구조모형을 도출하였다. 주소 기반 시설 데이터는 좌표화(geocoding) 과정을 거쳐 GIS 상에 점(point) 데이터로 구축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동일 좌표체계로 정합성을 확보하였다(Longley et al., 2015).

IV. 연구결과

2024년 기준, 전국에는 총 150개의 청소년복지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 중 청소년 쉼터가 137개소(일시 33개, 단기 66개, 중장기 38개), 자립지원관은 총 13개소(혼합형 7개, 이용형 6개)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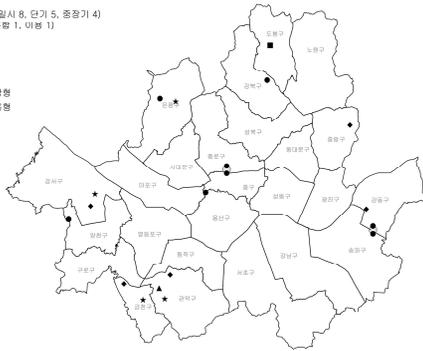
<표 2> 전국 청소년쉼터 현황

지역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	자립 지원관 (혼합형)	자립 지원관 (이용형)	합계
강원특별자치도	3	3	2	1	-	9
경기도	6	18	8	1	2	35
경상남도	1	2	2	-	-	5
경상북도	-	4	3	-	-	7
광주광역시	1	2	2	-	-	5
대구광역시	2	2	2	-	1	7

지역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	자립 지원관 (혼합형)	자립 지원관 (이용형)	합계
대전광역시	2	2	2	-	1	7
부산광역시	2	2	1	1	-	6
서울특별시	8	5	4	1	1	19
울산광역시	1	2	2	-	-	5
인천광역시	3	4	1	2	-	10
전라남도	-	3	1	-	-	4
전북 특별자치도	1	3	2	-	-	6
제주 특별자치도	2	2	2	-	1	7
충청남도	-	8	2	1	-	11
충청북도	1	4	2	-	-	7
총합계	33	66	38	7	6	150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총 19개소로 일시쉼터 8개소, 단기쉼터 5개소, 중장기쉼터 4개소, 자립지원관(혼합형, 이용형) 각 1개소씩이 분포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2024년 8월 기준)
 총 시설 수: 19개
 · 청소년쉼터: 17개 (일시 8, 단기 5, 중장기 4)
 · 자립지원관: 2개 (혼합 1, 이용 1)



[그림 1]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현황

경기도는 총 35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일시쉼터 6개소, 단기쉼터 18개소, 중장기쉼터 8개소, 자립지원관 3개소(혼합형 1, 이용형 2)가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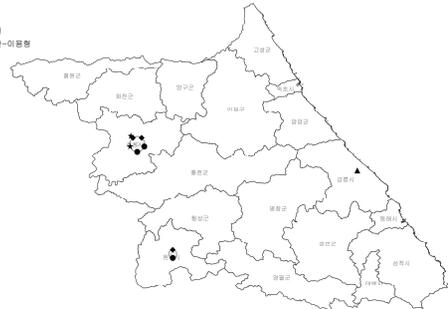
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2024년 8월 기준)
 총 시설 수: 35개
 · 청소년쉼터: 32개 (일시 6, 단기 18, 중장기 8)
 · 자립지원관: 3개 (혼합 1, 이용 2)



[그림 2] 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현황

강원특별자치도는 총 9개소로, 일시 및 단기 쉼터 각 3개소, 중장기쉼터 2개소, 자립지원관(혼합형) 1개소로 구성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2024년 8월 기준)
 총 시설 수: 9개
 · 청소년쉼터: 8개 (일시 3, 단기 3, 중장기 2)
 · 자립지원관: 1개 (이용 1)



[그림 3]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현황

영남권 지역은 다음과 같다. 경상남도는 일시쉼터 1개소, 단기 2개소, 중장기 2개소로 총 5개소, 경상북도는 단기쉼터 4개소, 중장기쉼터 3개소로 총 7개소가 운영된다.

경상남도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2024년 8월 기준)
총 시설 수: 5개
· 청소년쉼터: 5개 (일시 1, 단기 2, 중장기 2)

- 일시쉼터
- ◆ 단기쉼터
- ★ 중장기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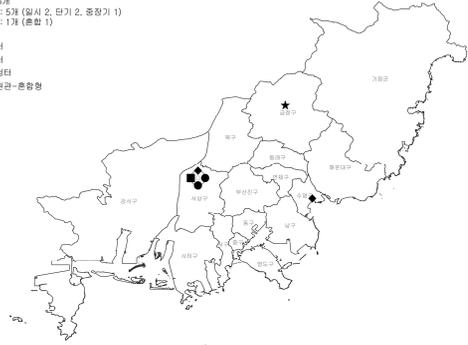


[그림 4] 경상남도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현황

부산광역시에는 일시·단기쉼터 각 2개소, 중장기 1개소, 자립지원관(혼합형) 1개소로 총 6개소다.

부산광역시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2024년 8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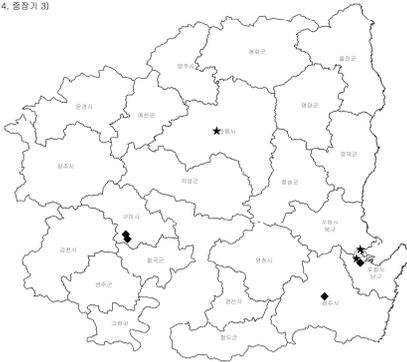
- 일시쉼터
- ◆ 단기쉼터
- ★ 중장기쉼터
- 자립지원관-혼합형



[그림 7] 부산광역시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현황

경상북도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2024년 8월 기준)
총 시설 수: 7개
· 청소년쉼터: 7개 (단기 4, 중장기 3)

- ◆ 단기쉼터
- ★ 중장기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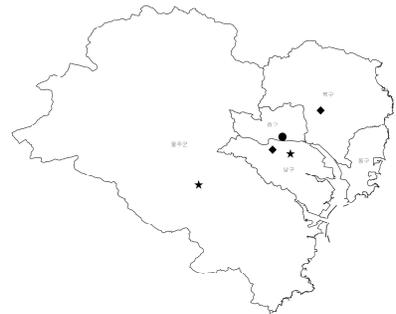


[그림 5] 경상북도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현황

울산광역시는 일시쉼터 1개소, 단기 2개소, 중장기 2개소로 총 5개소가 있다.

울산광역시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2024년 8월 기준)

- 일시쉼터
- ◆ 단기쉼터
- ★ 중장기쉼터



[그림 8] 울산광역시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현황

대구광역시는 일시쉼터 2개소, 단기 2개소, 중장기 2개소에 자립지원관(이용형) 1개소를 포함해 총 7개소이다.

대구광역시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2024년 8월 기준)
총 시설 수: 7개
· 청소년쉼터: 6개 (일시 2, 단기 2, 중장기 2)
· 자립지원관: 1개 (이용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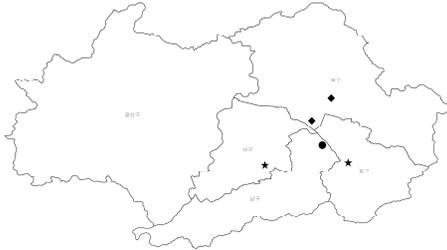
- 일시쉼터
- ◆ 단기쉼터
- ★ 중장기쉼터
- ▲ 자립지원관-이용형



[그림 6] 대구광역시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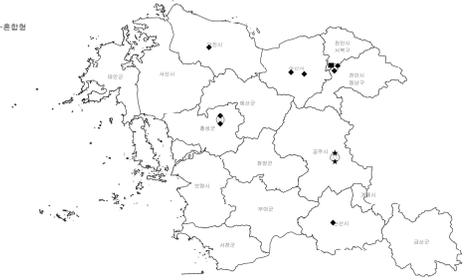
호남권과 충청권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는 일시 쉼터 1개소, 단기 2개소, 중장기 2개소로 총 5개소, 전라남도는 단기 3개소, 중장기 1개소로 총 4개소, 전북특별자치도는 일시 1개소, 단기 3개소, 중장기 2개소로 총 6개소가 운영된다. 이 지역에는 자립지원관이나 회복지원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광주광역시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2024년 8월 기준)
 총 시설 수: 5개
 - 청소년쉼터: 5개 (일시 1, 단기 2, 중장기 2)
 ● 일시쉼터
 ◆ 단기쉼터
 ★ 중장기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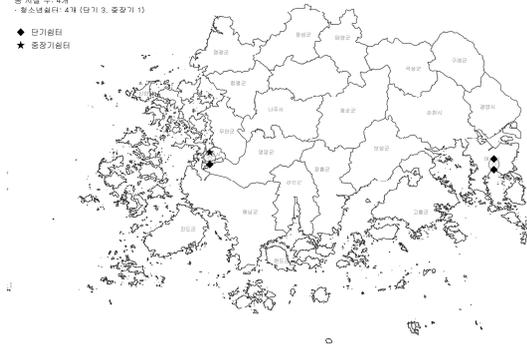
[그림 9] 광주광역시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현황

충청남도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2024년 8월 기준)
 총 시설 수: 13개
 - 청소년쉼터: 10개 (단기 8, 중장기 2)
 - 자립지원관: 1개 (혼합 1)
 ◆ 단기쉼터
 ★ 중장기쉼터
 ▲ 자립지원관-혼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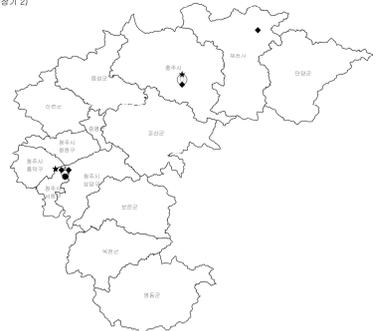
[그림 12] 충청남도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현황

전라남도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2024년 8월 기준)
 총 시설 수: 4개
 - 청소년쉼터: 4개 (단기 3, 중장기 1)
 ◆ 단기쉼터
 ★ 중장기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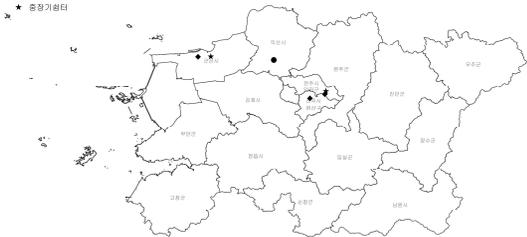
[그림 10] 전라남도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현황

충청북도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2024년 8월 기준)
 총 시설 수: 7개
 - 청소년쉼터: 7개 (일시 1, 단기 4, 중장기 2)
 ● 일시쉼터
 ◆ 단기쉼터
 ★ 중장기쉼터



[그림 13] 충청북도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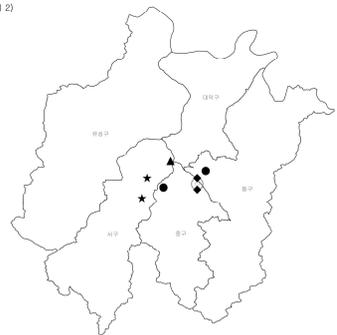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2024년 8월 기준)
 총 시설 수: 3개
 - 청소년쉼터: 3개 (일시 1, 단기 2, 중장기 2)
 ● 일시쉼터
 ◆ 단기쉼터
 ★ 중장기쉼터



[그림 11]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현황

충청남도는 단기쉼터 8개소, 중장기 2개소, 자립 지원관(혼합형) 1개소로 총 11개소, 충청북도는 일시쉼터 1개소, 단기쉼터 4개소, 중장기쉼터 2개소로 총 7개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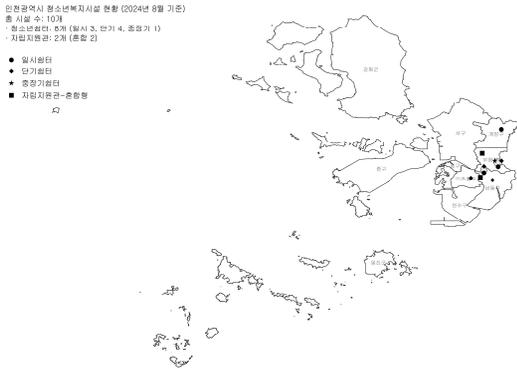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2024년 8월 기준)
 총 시설 수: 7개
 - 청소년쉼터: 6개 (일시 2, 단기 2, 중장기 2)
 - 자립지원관: 1개 (이동 1)
 ● 일시쉼터
 ◆ 단기쉼터
 ★ 중장기쉼터
 ▲ 자립지원관-이동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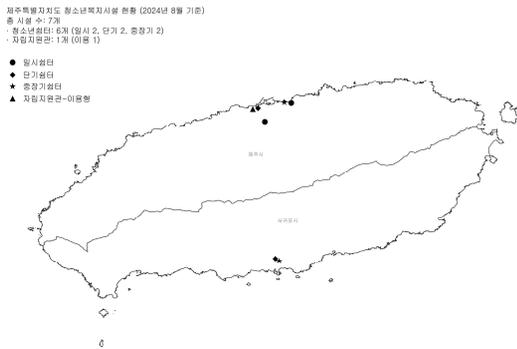
[그림 14]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현황

그밖에 대전광역시는 일시·단기·중장기 쉼터가 각 2개소씩 총 6개소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자립지원관이나 회복지원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인천광역시에는 일시 3개소, 단기 4개소, 중장기 1개소, 자립지원관(혼합형) 2개소로 총 10개소,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시·단기·중장기쉼터 각 2개소, 자립지원관(이용형) 1개소로 총 7개소가 확인되었다.



[그림 15] 인천광역시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현황



[그림 16]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현황

V. 결론

본 연구는 지리정보시스템(GIS) 활용하여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등 주요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역별 설치 현황을 분석하고 기능적 연계성과 협력 관계를 통합적으로 제안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에 청소년쉼터와 자립

지원관이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과 경기도는 일시·단기·중장기 유형이 모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 단위 지역은 시설 수 자체가 적고, 특히 일시쉼터와 자립지원관이 부족하거나 없는 곳이 있어 위기청소년의 ‘긴급 보호; 단기 개입; 중장기 보호; 자립지원’의 연속선(continuum)에 공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충청·전라·경상 일부 지역과 제주 등은 중장기쉼터는 확보했으나, 일시쉼터와 자립지원관이 상대적으로 적어 위기 초기개입과 자립 전이 지원이 취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경기 등 17개 시도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의 분포를 보면,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시설이 집중되고, 농산어촌·도서지역은 상대적으로 시설 밀도가 낮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일시·단기·중장기쉼터와 자립지원관(혼합·이용형)의 유형별 구성에서, ‘단기+중장기쉼터 중심+소수의 자립지원관’이라는 전국적 패턴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시설이 단기 보호 기능 중심의 기존 체계를 넘어, 보호→ 치료·회복→ 자립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보호 체계(Continuum of Care)’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단기쉼터에서 모든 기능을 담당하려는 방식은 현실적 한계가 있으며, 지역 내 기관 간 기능 분담과 연계가 구조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이 한 생활권 단위(시·군·구 또는 권역)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과 기능 재조정이 요구된다. 특히 단기·중장기 보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시쉼터와 자립지원관을 확충하여, 위기 초기 대응과 자립 준비의 양쪽 끝단을 보강해야 한다. 취약 지역 또는 시설 공백 지역에 시설을 일괄적으로 신설하기보다는, 권역 단위의 연계망·순회형 서비스·거점기관 모델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시설 수의 증감만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시설 배치의 균형

성과 기능의 적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간 시설 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도시지역과 중소 도시에 우선적으로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 신·증설이 필요하다. 이는 거주지에 따른 보호·자립서비스 접근 격차를 줄이고, 국가 차원의 최소 서비스 보장선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양적 확대보다는 시설 간 역할분담(성별·연령·특정위기 유형 특화)과 전문성 강화, 광역권 네트워크를 통한 사례 연계·전원을 체계화하는 방향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정서·행동문제, 트라우마, 가족해체 경험 등 고복합 위기 사례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회복·심리치료·자립훈련 등 전문서비스 제공 기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전문 시설 확충과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다기관 협력체계를 갖춘 청소년 보호권·치료권·자립권 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복지시설의 물리적·공간적 분포를 기반으로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확장성을 갖는다. 기존 연구가 시설의 기능과 성과 중심이었던 데 비해, 본 분석은 지역 불균형 관점과 공간적 접근권 관점을 함께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행정자료 연계 등을 통해, 쉼터→회복지원시설→자립지원관으로 이어지는 경로와 지역 간 이동, 재입소·이탈·자립 유지 궤적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뿐 아니라, 학교, 정신건강 서비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업훈련·고용서비스, 공공임대주택 등 주요 자원을 통합한 “청소년복지 생태계 GIS 지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정 밖 청소년, 보호종료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포커스그룹 등의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GIS로 드러난 공간 구조와 이들의 체감 접근성·시설 이용 경험을 연결하는 혼합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영한 (2023).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지윤 (2020).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인프라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1(2), 235-261.
<https://doi.org/10.14816/sky.2020.31.2.235>
- 오민수, 김주연 (202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 설치를 위한 수요추정 방법과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 20(1), 1-45.
- 전민경, 이지선 (2020).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준비 지원 실태조사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박희희, 고하정 (2024). 안전한 도시, 건강한 장소: 청소년의 감각으로 읽어낸 도시의 공간들. 작은 연구 좋은서울.
- 성평등가족부 (2024).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현황(2024년 8월 기준).
- 성평등가족부 (2025). 청소년복지시설현황(2025년 3월 기준 엑셀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2025). 성평등가족부_청소년쉼터 현황(2025년 3월 말 기준).
- 공공데이터포털 (2025). 성평등가족부_청소년 자립지원관 현황(서비스: 2025-03-31 기준).
- 국가정책연구포털 NKIS (2018).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기초분석) 소개 페이지(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조사 개요).
- Burrough, P. A., & McDonnell, R. A. (1998). *Principles of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Oxford University Press.
- Harris, R., & McKenzie, B. (2018). *The use of GIS in social work practice and research*. Oxford University Press.
- Longley, P. A., Goodchild, M. F., Maguire, D. J., & Rhind, D. W. (2015). *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 and systems(4th ed.). Wiley.

- Penman-Aguilar, A., Makram Talih, I. David Huang, Ramal Moonesinghe, Karen Bouye, Gloria Beckles. (2016). Measurement of health disparities, health inequities, and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to support the advancement of health equity. *Journal of Public Health Management and Practice*, 19(Suppl 1), S33-S42.
- Twinn, S. (1990). Health and inequality: Geographical perspectives. *Social Science & Medicine*, 30(9), 1065-1073.

투고일자: 2025. 12. 30.

심사일차: 2026. 1. 27.

게재확정일자: 2026. 2. 2.

A Study on the Community Structural Model of Youth Welfare Facilities

– Focusing on Youth Shelters, Youth Self–Reliance Support Centers, and Youth Recovery Support Facilities –

YunNa Kim

Seoul Cyber University

This study developed a community–based structural model of youth welfare facilities in Korea by apply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analysis to three key facility types: youth shelters, independent living centers, and recovery support facilities. Using geocoded national address data, I have analyzed regional spatial distribution, youth population–to–facility ratios, facility density, inter facility distances, and transfer routes, revealing a concentration of facil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major cities, and shortages of emergency shelters and independent living centers in rural and some provincial areas. The nationwide pattern of “short– and long–term shelters plus a small number of independent living centers” indicates structural weaknesses at both ends of the continuum of care, leading the study to propose a community–based model featuring lifestyle–area–based facility networks, functional differentiation at regional hubs, targeted expansion, and mobile services, and to call for future research that integrates GIS–based spatial analysis with qualitative and longitudinal designs.

Key words: Youth Welfare Facilities, Youth Shelters, Youth Self–Reliance Support Centers, Youth Recovery Support Facilities, Community–Based Structure Model